



# 육계시장

(단위 : 원 ; kg)

월일	지역	서울 지역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대전
	구분	하이	세미	노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1월 5일		1,000	1,000	500	1,170	1,100	980	1,050	1,000
8일		970	960	480	1,150	1,100	980	1,100	1,000
13일		1,000	1,000	480	1,030	1,100	980	1,100	1,050
19일		980	980	480	1,100	1,050	1,000	1,100	1,050
23일		1,000	1,000	500	1,100	1,000	1,000	1,100	1,000
27일		980	980	520	1,100	1,000	1,100	1,000	1,000
79년 12월		392	361	223	419	413	377	435	419
1월		752	747	303	781	780	708	737	784
2월		947	963	350	976	972	972	894	972
3월		1,138	1,136	546	1,151	1,128	1,048	1,096	096
4월		800	768	308	781	769	802	864	882
5월		591	599	312	622	609	646	660	637
6월		593	591	333	643	630	630	660	623
7월		624	615	374	688	692	674	695	656
8월		670	650	434	718	696	702	808	720
9월		758	745	442	780	814	759	845	779
10월		835	845	408	821	828	813	850	837
11월		930	930	413	928	968	953	1,000	968
12월		974	972	568	968	952	980	988	996
81년 1월		985	986	478	1,088	1,073	993	1,096	

## 계속적인 보합세

작년 10월 이후 육계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생산자들의 조심스러운 입추 조절과 부화장의 생산감축, 새로운 수요개발 (켄터키 후라이드치킨)이 합쳐서 생긴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1,000원 전후에서 머물고 있는 가격 수준은 금년 겨울처럼 한파로 인해 많은 연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사양 관리가 충실치 못한 농가는 생산비정도 밖에 되지 못한다 하겠다. 따라서 요즈음 같이 생산비 압박이 심각한 때에 생산자가 해야 할일은 무엇보다도 생산비 절감이라 하겠다.

“브로일러 그거 관리할게 뭐 있나요? 아침에 물주고 사료주고 나면 할게 없어요” 화투짜울 만지면서 하는 어느 육계 생산자의 말이다. 앞으로의 양계 산업은 지나간 ‘세월(?)’과 같이 투기적인 소득이 생산 노력에서 얻는 소득보다 많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이 기록하고 공부하며 계사내에서 닭과 더불어 생활하는 생산자만이 앞으로의 高原(고원)시대에서 생존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1월중에는 다소 부화장의 생산량이 증가 기미를 보였으나 사료가격 재인상과 강추위로 인한 연료비 부담, 사료거래 조건의 정상화로 인하여 생산자들이 잠시 입추를 기피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 12월의 입추량은 11월에 비해 약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나 청소년층의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라서 세미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2월중 시세는 역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 예상된다.

전용종(하이) 가격 월별 추세 (서울지역 1979~81년) (단위: 원/kg)

